

교회 소식

1. 환영합니다

-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. 그래서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주시면,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.

2. 6월은 『가정예배』 드리는 달입니다.

- 실천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가정예배 드립시다.

3. 기타안내

- ① 6월은 『가정예배』 드리는 달입니다.
- ② 요르단 최재원 형제로부터 다시 선교편지가 왔습니다. 뒤편에 붙여놓았습니다.
- ③ 6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라마단 기간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.
- ④ 유치부-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전진영, 노진호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사강습회에 참석해야 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.
- 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.
- ⑥ 오늘 점심시간에 악기연습이 있습니다.
- ⑦ 장례: 9일(화), 황한일(송영숙) 집사님 모친상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언약교회

COVENANT COMMUNITY CHURCH

섬기는이 목사-조호진, 임종훈 / 전도사-전진영, 노진호
서울 관악구 인현동 181-6 현대아파트상가 (3층)
☎ 02-875-7760 <http://www.unyak.org>

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

온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"제자삼는 제자"가 되는 교회

<http://www.unyak.org>

제17-24호

2015년 6월 14일



(가시면류관)

주일	유 . 초등부	오후 1시30분
	중 . 고등부	오전9시30분 //오후1시30분
	주일 예배	오전 11시 // 오후1시30분
주중	새벽 기도회	오전 5시30분 (월~금)
	수요 예배	저녁 8시

온라인
현금

- ☐ 일반현금 : 국민은행 387-21-0060-940 (예금주/조호진)
신한은행 308-12-390429 (예금주/조호진)
우리은행 1005-901-708982 (예금주/언약교회)
☐ 예배당매입현금 : 국민은행 830502-04-176405 (예금주/조호진)

봉사
안내

	이번 주(6/14)	다음 주(6/14)
설거지	강수빈, 천명재, 이동균	김명중, 백주현, 김성현
오후통독	박영복(히브리서 7-8장)	윤지영(히브리서 9-10장)

주일 예배 순서

인도 : 조호진 목사

-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
- 사도신경 일어서서
-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
- 찬양 찬송가 586장 "어느 민족 누구게나" 다함께
- 대표기도 윤희진 자매
- 성경 봉독 이사야 7장 1-25절 말씀 김광수 형제
- 말씀 『<임마누엘>에도 불구하고』 조호진 목사
- 결단의 기도 다함께
- 성도의 교제 다함께
- 광고 인도자
- 찬양 "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" 일어서서
- 축도 조호진 목사

- ▣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- ▣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.

		다음 주(6/21)	2주후(6/28)
예배 위원	대표 기도	김지영 자매	박영복 권사
	성경 봉독	심효진 형제	신채홍 자매

성경 본문 (개역개정판-이사야 7장 1-25절 말씀)

<1>역사적 배경: 아하스 시대의 전쟁(아람-북이스라엘 연합군 vs 남유다)

이사야 7장 1-2절 말씀

- 0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बे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
- 0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

<2>아하스를 향한 여호와와 첫 번째 말씀

: 권면-삼가며 조용하라/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

이사야 7장 3-9절 말씀

- 0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
- 0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
- 05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
- 0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

- 07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
- 0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
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
- 0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
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
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

<3>아하스를 향한 여호와와의 두 번째 말씀: 약속-임마누엘

이사야 7장 10-16절 말씀

-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
-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
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
- 12 아하스가 이르되
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
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
- 13 이사야가 이르되
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
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
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
-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
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
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
-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
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
-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
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

<4>아하스의 선택과 행동 (열왕기하 16장 5-12절 말씀)

- 05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
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
능히 이기지 못하니라
- 06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
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
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
- 07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
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
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
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
- 08 아하스가 여호와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
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
- 09 앓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
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
또 르신을 죽였더라
- 10 아하스 왕이 앓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
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
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
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
-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
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
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
-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
제단을 보고
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

<5>앗수르 왕이 오는 날: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 오게 될 것이다

이사야 7장 17-25절 말씀

-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
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
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
- 18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
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
- 19 다 와서
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
- 20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
네 백성의 머리 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
- 21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
- 22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영긴 젖을 먹을 것이라
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영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
- 23 그 날에는 천 그루에 은 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
짚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
- 24 온 땅에 짚레와 가시가 있으므로
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
- 25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
짚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
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